

사설

‘점’으로 행복 점칠 수 없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베다의 주문 법과 꿈을 해몽하는 일과 관상과 별점 등을 쳐서는 안 된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구절이다. 새삼스럽게 경전 문구를 인용한 것은 새해 들어 토정비결이나 신수점을 보기 위해 점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세상사다 보니 자신의 운명이 나 미래를 점치고자 하는 것이다. 길흉을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인간들의 소박한 심리를 탓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것에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는 없다. 인간의 행복은 노력하는 데 있다. 무엇이든 쉽고 편안하게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별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은 별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전생담>의 가르침은 그래서 소중한다.

부처님께서는 운명론자, 우연론자, 유신론자들을 비판한 바가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약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자의 의지와 그에 따른 부단한 노력이 부와 행복을 약속해 준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패배의식과 불신감이 팽배되어 있다.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로또 복권이 열풍을 일으키는 것 역시 한탕주의 내지 공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 누군들 노력해서 행복을 찾으려 하겠는가? 점이나 보러 다닐 수밖에 없게도 한다. 그러나 세상이 불안하고 불확실할수록 불자들은 이 사회의 빛과 그들이 되어야 한다. 미신이 현혹되어 마음의 안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불교 생협 활성화돼야 한다

이웃끼리 노동력을 나누며 품앗이나, 공동체의 일을 함께 처리하던 두레의 전통이 사라진지 오래다. 급속도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사회로 변화하면서 수많은 전통적 가치나 생활문화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일수록 오히려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거대한 사회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나날이 악화되는 환경 오염과 안심할 수 없는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각성된 개개인의 구체적 행동만이 해결책인 텐데, 그것의 결집된 형태가 바로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생활공동체’라 할

‘생활’이 불교계에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창립으로 시작된 불교 생협이 올해 초 서울 봉은사 등 7개 단체가 연합한 불교생협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에 비하면 많이 늦었지만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실상사에서 인건 주인과 협을 합쳐 20만평 규모의 유기농 단지를 조성하여 생협의 한 축인 생산 기반을 갖췄다. 불교 생협은 단순히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확보 수단을 넘어 부처님의 생명사상을 사회화시킬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특히 사찰이라는 공간은 도시와 농촌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묶어주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전문포교사제도 시행한다

조계종 자격기준·선발절차등 세부계획 마련키로

현장 포교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일반포교사들에게 전문포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일반포교사 제도 시행 8년을 맞아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신도법에 명시된 전문포교사 제도를 활용, 재가자들의 포교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포교원은 1월 28일 회의를 열고 제도 운용을 위한 포교원 내규 제정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초순경 자격기준

일반포교사로 3년이상 활동자 대상

2년동안 시험운영...2005년 본격 실시

과 선발절차, 교육 등 전문포교사 제도 운영 세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사를 활용, 재가자들의 포교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포교원은 1월 28일 회의를 열고 제도 운용을 위한 포교원 내규 제정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초순경 자격기준

중이며, 운영은 기존 포교사단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포교사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 전문포교사 심화교육, 신분 및 지위 보장, 일반포교사와 구분된 활동영역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될 경우,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포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포교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포교원 윤승환 포교주임은 “일반포교사와 구분된 지위와 활동 보장은 단순히 전문포교사 제도 시행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중이며, 운영은 기존 포교사단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포교사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 전문포교사 심화교육, 신분 및 지위 보장, 일반포교사와 구분된 활동영역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될 경우,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포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포교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포교원 윤승환 포교주임은 “일반포교사와 구분된 지위와 활동 보장은 단순히 전문포교사 제도 시행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포교사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며 “완벽한 시행계획과 점진적인 시행을 통해 시행작용을 줄이고 빠른 시일내에 전문포교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조계종 종합학교관리위원회장 원택스님 선출



조계종 종합학교관리위원회는 1월24일 총회사무처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원택스님(사진)을 선출했다. 또 부위원장은 정법스님이다. 간사에는 의연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단의 임기는 2년이다. 종합학교관리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승가대학령 개정

승가대학 수업일수, 휴·복학 조항 신설

만40세 초과자 행자교육원 입교 불허

조계종이 행자 및 승가대학 학인들의 전학, 편·입학 과정에 대한 체계를 세워 나간다. 조계종 교육원은 1월 28일 교육원회의를 열고 행자교육원령과 승가대학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2000년 전국 승가대학 학장회의에서 결의돼 시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미비한 중령을 법제화했

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승가대학령은 입학시, 편입학, 재입학, 전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4학년(내교반) 종강일은 음력 12월10일 이후로 한다는 수업일수 조항을 신설했고, 휴·복학 과정과 절차에 대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또 휴학, 복학, 재입학, 전학의 경우 당해 승가대학장은 증명서류

와 사유를 기재해 조계종 교육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교육원령 개정안은 입교불허 기준 가운데 6개월 이하였던 기존의 이혼 경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한편, 만 40세 초과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원에 수행 내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입교 불허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전영근 차장은 “조항을 추가 또는 보완함으로써 학인들의 전학 질서를 바로 잡고 나아가 올바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동국학원 이사회 성원미달로 못열어

2월19일 열기로

동국학원 19회 이사회가 1월27일 12명의 이사 중 6명이 참석,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추가경정에 산안과 불교병원 개원준비위 보고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다음 이사회는 19일 오전 11시 교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원우 기자

다. 표어는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나 불교의 이미지를 쉽게 전달하고, 어버이나 가정의 의미를 담은 것이면 된다. 글자수는 10자 이내이며, 접수는 이메일(hnk@buddhism.or.kr)로만 가능하다. 당선작에는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02)725-6641 한명우 기자

‘이웃종교인과의 만남’ 행사

100여 참석자들 ‘반전평화선언문’ 채택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는 1월 29일 서울 조계사 법당에서 종교간 화합을 위한 ‘이웃종교인과의 만남’ 행사를 열었다. ‘불교와 이슬람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주화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사무차장이 참석해 이슬람 사상의 특징과 문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계사청년회 지도법사 원명스님, 조계사 신도회 이연숙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불자들은 이라크와 북한 핵문제에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반전평화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불자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투자되는 돈을 사회 복지와 평화를 위해 쓰자”고 결의했다. 강유신 기자

주2회 화엄사 산사체험

철도청·전라남도

철도청과 전라남도는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8일부터 매주 2차례 구례 화엄사 산사체험을 실시한다. 매 회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화엄사 산사체험은 새벽예불, 발우공양, 선체조, 참선, 암자순례, 스님과의 차담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불자는 물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화엄사 산사체험은 매주 수·토요일 오전 7시50분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062)223-4416

승가학원 정체성 확립키로

부처님오신날 표어 모집

조계종 봉축위원회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봉축 표어를 모집한

승가학원은 1월 28일 열린 62차 이사회에서 승가학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앙승가대 교육목표를 수정하고, 대학원에 사회복지과 개설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원우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건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일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인쇄인 : 김규석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kr
윤리인사점 '에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대표전화: 02-737-8881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인사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2003 학년도**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2기를 모집함

과목	· 한문법(1), 한문법(2) · 장자, 주역 · 선가경감,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교수진	· 김형중교법사, 심재동 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 송관우 교수(승가대), 무전장 스님, 김병조 교수

불교미술학과 (3월 5일 개강)

이론편	· 불교미술사(인도, 티벳, 동황, 중국, 남방) · 고려불화, 조선불화, 현대불화 · 불화제작의 이론(단명, 화엄변상도, 만다라)
실기편	민화, 단청, 사천왕, 8부중, 팔상성도, 보살상, 부처상, 영산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만다라

우리춤학과 (3월 5일 개강)

지도교수	이예주(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교과목	① 우리춤 기본(몸놀림의 기본 토대 교육) ② 승무 기본(염불가락, 타령가락, 굿거리 가락) ③ 작별 기본(춤의 기본 사위와 비라놀림) ④ 복과 장단기본(복놀림과 우리 장단의 기본)

2003년 2월 8일(토요일)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 본 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보련각(조계사 앞) 02)733-0333 ● 부산: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삼영불교서점 053)425-4097 ● 대전: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예전수보리실터 064)743-4184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동산불교(경전)대학원** 신입생 모집 **2003 학년도**

과목	요일	개설경전	교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한문경전)	법화경(1)	박종	법화경(1)(2)(3)(4), 화엄경(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산스크리트·팔리경전)	숫타니파타 1	전재성	숫타니파타 아함경 팔천승반아경
능엄경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능엄경 보경소(2)	송찬우	능엄경(1)(2)(3)(4)(5)(6)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근본불교 (수행론 37조도품)	최봉수	근본불교(1)(2)(3) - (6)(7)(8) 금강경 법화경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경구) 이수자 ② 불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④ 불교양대학졸업증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③ 반영합람 사진 3매	2003년 2월 1일~ 2003년 2월 28일(금) [서류전형]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2003년 3월 3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2003년 3월 6일(목) 오후 4시
● 능엄경학과: 2003년 3월 4일(화) 오후 2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한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